

연중 제 5주일

제 1독서 : 이사 6, 1-2a, 3-8

제 2독서 : 1고린 15, 1-11

복 음 : 루가 5, 1-11

순정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루가 5, 10)

강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득재 신부/인후동 천주교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좋은 의미가 있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행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나를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 지금의 나는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선택해 왔던 삶의 결과이고, 지금의 나의 행위는 내일의 나를 있게 만든다.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충실히 응답하려 노력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스승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며 한 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 대표적 인물로서 베드로와 유다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특별히 간택된 사람들이었지만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스승 예수를 배반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되, 그 다음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용서를 청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라면 자기가 고발하여 흘리게 한 그 거룩한 피가 가져다 주는 첫번째 수혜자(受惠者)가 되었을 것이다.

잘못했지만 용서를 청하고 다시 출발하는 자를 예수께서는 용서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거부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뉘우침과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했고 애정 넘치는 용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 용서의 힘으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어떤 인물보다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했던 유다는 끝내 이 한 마디를 하지 않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피도 그에게는 헛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소리

교육개혁

실업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꼽히는 독일에서는 자녀들이 국민학교 5학년만 되면 진학시킬 것인지 취업전선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10학년, 우리로 치면 고교에 진학할 때, 취업전선으로 내보낼 자녀는 직업고교 또는 기술고교로 진학시킨다. 이처럼 실업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전체의 70%나 되고 3년 동안 철저한 실재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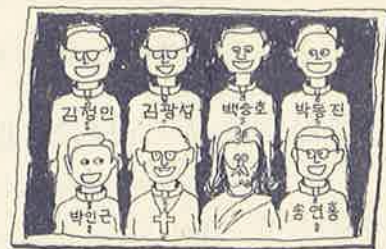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어떤가. 개성과 소질에 관계 없이 자녀들 모두를 전과목에서 뛰어난 만능이 되도록 내몰고 있다. 영어, 수학, 국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같고 닦아야 하고 대정치인이나 대석학이 돼야만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실이다. 학문소양 일반도의 엘리트의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만능인도 필요하고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들 자녀 모두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기본적 소양만 갖춘다면 흥미없는 과목까지 강요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부담만 늘리고 소질을 개발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만 자초할 뿐이다.

이런 때 교육부가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평준화 정책의 개선, 속진제 도입, 학교장 재량확대, 주 5일제 수업 시범 실시 검인정교과서 확대와 개편 등 전면적 개혁안이다. 가히 교육대란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무리와 반발로 당초 목표마저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

순정이 산책



신품성사 기념사진

성서교실 49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창세 35, 1~20)

이 이야기는 주로 바빌론 유배시대에 문필활동을 벌였던 사제들의 작품이다. 따라서 제사적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지는 야곱의 족보와 36장의 이사악의 족보도 사제계 문헌에 속하는데 사제들은 성조들의 이야기들 끝에 족보를 첨가시킴으로써 인류역사가 체계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족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구전이나 문서로 전해져 오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사제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느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마을의 남자들을 대량학살한 후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은 그곳의 남자들을 죽이고 성을 약탈한 후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하느님의 출발명령은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하느님은 베델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당신에게 제단을 쌓아 부치라고 분부하신다. 야취스트와 엘로히스트 문헌인 28장에서는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느님을 꿈에 뵈고 자진해서 석상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다. 제단에 대한 사제들의 권위와 의도가 엿보인다.

야곱은 하느님의 분부를 받고 즉시 가족들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에게 세겜을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야곱은 제단을 쌓으러 가기 전에 가족 모두에게 부처처럼 달고 다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목욕을 하고 새옷을 갈아 입도록 한다. 이것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갖추어야 할 외적인 준비였다. 사제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에게 이방 신상들과 더불어 내놓은 귀걸이들은 달신을 표상하여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느티나무 아래 묻고 세겜을 떠나는데 그 근처 일대의 사람들은 신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야곱 일행을 추적할 엄두도 못 내었다.

야곱은 드디어 루즈에 도착했다. 루즈는 28장을 해설할 때 나온 바와 같이 베델의 옛 이름이다.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은 이제 야곱에 의해서 하느님의 이름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느님과 동일시된다.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바탄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엘(EI)’신을 숭배하던 산꼭대기의 신당. 후에 ‘엘’의 이름을 딴 성을 베델(Bethel)이 이곳에 생겼다.

도중 야곱이 야벳강가에서 하느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다고 전하는 32장의 기록과 야곱이 에사오의 복수를 피하여 바탄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과 약속을 받은 28장의 기록을 혼합시키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하느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 전에 이름부터 바뀌었다. 하느님께서 축복과 약속의 내용은 역시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다. 야곱은 28장에서처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처럼 야곱의 이야기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장면은 세 번씩이나 나온다.

베델을 떠나 야곱 일행이 에브라트 근처에 왔을 때 라헬이 출산 후유증으로 죽는다. 그래서 라헬은 아기의 이름을 벤오니, 곧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야곱이 불길한 이름이라 하여 ‘베나민’ 곧 ‘오른편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 바꿔 부른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도 성조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간다. 야곱에게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재촉하는 하느님께 야곱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순종해 왔다. 약속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고, 순례의 길은 고달프지만 야곱은 주님께서서 함께해 주시니 안심하고 걷는다.

사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리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환명사상건강회

무지개 광고

서관,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 (0652)252-0207

FAX (0652)252-0208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피부과

메이크업·분장과

김금순(데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운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75-5411

호출기 012-682-0046

교리상식 15

주의 봉헌 축일(2월 2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지난 후 40일, 즉 2월 2일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성전에 봉헌한 날이다. 그래서 주의 봉헌 축일이라고 한다. 이 축일에는 지금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축성하고 촛불을 켜 둔 신자들이 행진하여 성당에 입장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이 풍습은 예수 성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풍속으로 이어진 성탄시기를 마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루가 복음 2장 22절~39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를 바치는 내용으로 나온다.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아기 예수가 사실상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모 취결례'라고 부르던 명칭을 '주의 봉헌'으로 바꾸었다(1970년 이후).

구약 성서(레위 12,1~8)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부인들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80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 절차에 따라 "번제로 드릴 일 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짐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12,6)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새끼 양 한 마리도 바칠 힘이 없다면 짐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구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12,8)고 규정하였다.

사제가 제물을 받아 여인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 이런 구약의 법규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고 원죄에 물들지 않은 가장 깨끗한 마리아에게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서 봉헌되기를 원하였다.

교구 소식

1. 사목교서 연수 : 2월12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교구단위 제단체장 및 본당 제단체장 참가 희망자
2. 전주 제14차 선택주말 : 2월10일~12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남녀
회비-38,000원, 접수·문의 85-3637(조형식)
3. 전주지구 성서교실 개강 : 2월10일(금) 전동 성당 교육관, 강의내용-바오로서간, 요한묵시록, 문의-교구 사목국(85-0041) <많은 분들의 수강 신청바랍니다>
4. 예·신 월례모임 : 2월12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5.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2월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6.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M.B.W) : 2월20일~22일 수류 성당 교육관
과정-우리시대의 영성, 대상-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참가비-35,000원
문의·접수-85-0042(오성기 신부), 출발-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7. 성심여·중고, 해성중·고 졸업식 : 2월9일(목) 중학교-오후2시 혜성 고등학교-오전10시, 성심여고-10시30분
8. 성직자 묘지미사 : 2월11일(토)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9.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2월12일(일) 효자동 성당, 삼천동 성당, 둔율동 성당
10. 교도소 개학 미사 : 2월8일(수) 오후1시 장소-교도소

- **성소모임** 미래내 성모성심 수녀회 : 2월12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0653) 53-8395
거룩한 말씀회 : 2월12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84-2076
샬트르성비오로수녀회 : 2월12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 842-4132

요심이 (1119) 김병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돈보스꼬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직종 : 기계과(선반 및 기계조립 00명)
·대상 : 고졸 및 중졸(특수과정-학력제한없음) ·연령 : 만15세~23세(군필 및 면제자) ·교육기간 : 1년, 전원 기숙사 생활(기숙비 무료) ·원서교부 및 접수 : 2월15일(중졸) 2월28일(고졸) ·연락처 : 돈보스꼬 청소년센터(02-833-4010/4085)

장의용품 판매 안내
당 조합에서는 장의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특히 비신자에게 염·입관을 무료로 봉사해드립니다.
☎ 주간 54-2861, 54-1594
야간 51-1688, 855-7817
영동동 전주교 신용협동조합

영창피아노 전북대리점
· 각종 피아노 교환, 수리, 조율 서비스전문센터
· 신용카드 환영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갈매목 사거리와 다가동 파출소 중간
☎ 84-6085, 223-5823

피아노 현금이 무이자 할부판매
삼익피아노 코아특약점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및 각종 악기
코아백화점 3층
☎ 86-1181, 80-1309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폰소)
☎ 88-7717~8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호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5주일

◎ 날마다 그 날 성서구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1. 오늘은 "교부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2. 성심회 떡국잔치: 7일 어머니미사 후
3. 특별기도 및 성체감복: 9일 저녁미사 후
4. 반회장 모임: 9일 전 10시30분
5. 모임: ①울뜨레아-5일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③장우회-12일 장엄미사 후
6. 금주 철소: 남노 2,3반
차주 철소: 인후 1,2반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1. 꾸리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 청년회: 저녁미사 후
3. 프란치스코회: 차주 2월12일(일요일) 공식미사 후
4. 울뜨레아: 2월9일(목요일) 오후 6시30분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1. 단체장 사목교서 연수: 12일(다음주일) 교구청(오전 9:30~오후 4시)
2. 대건회: 5일(오늘) 공식미사 후
3. 사목회: 5일(오늘) 공식미사 후
4. 구역분과회: 7일(화) 오전 10:00
5. 울뜨레아: 7일(화) 저녁미사 후
6. 안나회, 자모회: 9일(목) 오전 10:00
7. 여성분과회: 11일(토) 오전 10:00
8. 요셉회: 1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9. 꾸리아: 12일(다음주일) 오후 2:00
10. 청년회: 12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11. 해설지 모임: 1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12. 전주 제14차 선택주말: 2월10일-12일 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남녀, 회비-38,000원, 접수·문의: 85-3637(조형식)
성당 철소: 11일(토) 황금 궁전Pr, 성모 성녀Pr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라경섭 부부
 봉헌-이갑규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연중 제5주일

1. 금주: ①성소후원회비 납부주일 ②보좌신부님 송별미사(공식미사) ③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④계속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⑤요셉회(후 6시)
2. 돈.보스코회: 8일(수) 오후 7시30분
3. 성체감복 및 조배: 9일(목) 오전 10시
4. 다비드회: 11일(토) 오후 3시
5.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④보좌신부님 환영미사(공식미사)
6. 고령 집례 안내
①고백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 단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성체감복 및 조배-매주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④병자 봉성체-매주 첫 금요일 오후 2시
⑤유아 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⑥차량 축복식: 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연중 제5주일

1. 오늘은 교부금 및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주일 3. 사목교서 연수회: 2월12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제단체장
4. 구역형제회: 8일(수) 서당, 내정, 공기, 백암, 어두, 수월, 마치 9일(목) 색장, 하신, 상신, 원신, 신흥, 의암
5. 금주 철소: 천주의 모친Pr. 6. 차주 철소: 구세주의 모친Pr.
7.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갑자
 봉헌-남현준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주영래
 봉헌-이명수씨 부부

* 복음삼덕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완전한 덕을 '복음삼덕'이라고 하고 '복음의 권고'라고도 한다. 이것은 "하느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라 주님의 그 완전성을 더욱 가까이 모방하여 완덕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청빈, 정결, 순명 등이 있다.

1. 청빈-마음과 정신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므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한다.
2. 정결-모든 육신의 쾌락을 끊고 일생을 독신으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생활이다.
3. 순명-자기의 자유 의사를 끊어 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교회 어른께 순명하는 생활이다. 이상은 수도자들이 지키는 3대 서원의 내용이다.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1. 구역 반회장 연수: 7일 전 10:30 구역연계 확인
2. 제단체장 사목교서 연수: 다음주일 전 10시 센터, 의무 참여
3. 교도소 설 미사: 8일 후 1시30분, 후원회원과 함께
4. 선택 14차 주말: 천호, 10일~12일 이육회(모니카) 유호순(가브리엘라) 강신정(엘리사벳)
5. 가정방문(코오롱APT): 7일 전 9시(8-1) 후 2시(8-2) 9일 전 9시(8-3) 후 2시(8-4) 10일 후 2시(8-5)
6. 회의: ①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②빈첸시오회-8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대회-10일 후 3시
 ④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⑤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